

“국내는 좁다” 동남아로 향하는 카드사… 수익성 ‘썰썰’

인구 대비 결제인프라 미흡
성장 가능성 높아 진출 매력
베트남·인도네시아 중심 공략 확대
카드론 수요 많아 수익 기대

국내 카드사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금융결제망이 필요한 나라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수익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 가운데 5곳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다. 동남아에 발을 담근 카드사는 신한, KB국민, 우리, 롯데, 비씨카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동남아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의 192% 급증이라는 쾌거를 이룬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지급결제 시장 공략에 유독 힘을 준 덕분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 카드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시스

1980년 비자(VISA) 인터내셔널이 외환은행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과 유사하다.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안착 단계까지 노리는 것. 아울러 동남아의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트남

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더 나아간 7.2%로 점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또한 전망이 밝다. 인구는 2억7900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카드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카드사가 늘 것으로 예

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동남아 진출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 내 금융사의 자체 카드사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지 동남아 금융사 또한 카드업 진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카드업의 경우 가맹점 확보와 결제인프라 조성 등 영업활동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지 진출 카드사의 영업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베트남 회사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는 지난달 말 첫 신용카드인 ‘더 퍼스트(THE FIRST)’를 론칭했다. 그간 대도시 우량 차주 대상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오토론, 할부금융, 디지털 대출 등 신상품을 지속 출시했으며 지난달 신용카드 출시까지 진행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캄보디아에 4번째 지점인 땡트라 지점을 개소했다. 캄보디아 내 수요가 높은 MG자동차 본점 건물에 입점해 자동차할부금융 특화 지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시장에서 선지급 후결제(BNPL) 서비스를 선보였다. 베트남의 쿠팡으로 불리는 ‘티키(Tiki)’

와 협업했다. 롯데카드를 이용해 티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3개월간 분할 상환하도록 구성했다. 연회비 없이 최대 3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인도네시아 할부금융사인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를 인수했다. 우리카드의 미얀마 법인인 투투파이낸스에 이은 두번째 진출이다. 인도네시아 법인명은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다.

비씨카드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IT 개발사 ‘크레니움’을 인수했다. 비씨카드는 QR지급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5월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 국책사업에 해외 QR결제 제휴사로 단독 선정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QR결제 사업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씨카드 또한 지난해와 이어카드 베트남 법인 인수를 통해 베트남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QR결제 시장 연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금융사, 태풍 피해 긴급 금융지원

신한금융, 피해 복구에 전 계열사 동참

중소 대출만기 연장·분할상환 유예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방면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 일환으로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이들과 거래 중인 협력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지원 ▲대출만기 연장 ▲분할상환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고객참여형 기부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신한SOL 및 주요 그룹사 앱을 통해 기부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신한은행이 건당 1000원을 모아 기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연체 중인 회원까지 포

함해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대상으로 2~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채무상환 유예 고객의 한도 부족 시 일시 한도 지원 ▲피해 일 이후 사용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 30%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오토금융 고객에게는 ▲차량 침수 시 렌터카 서비스 기간 확대(10일→15일) ▲전손으로 인한 중도상환 시 수수료 전액 면제, 피해 고객 대상 ▲신한카드 신차, 중고차 할부, 렌터카 이용 시 금리 0.2%p 할인 ▲리스 이용 시 1회에 한해 30만원 청

구 할인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신한금융투자는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이 피해 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3개월간 0.5%p 금리를 인하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금융조용병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나은행

AI 챗봇 ‘하이챗봇’ 새단장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하이챗봇’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오픈했다.

하이챗봇은 손님이 문의한 내용을 AI가 분석해 필요한 답변을 해주는 메신저 형태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챗봇 상담 기능 강화 ▲개인화 서비스 도입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의 연계 확대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이챗봇’을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대화 시나리오 및 지식 데이터 확장을 위해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업해 자체 개발한 NLP(자연어 처리기술)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챗봇의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구남영 기자

하나금융, 5000만원 긴급대출 등 실시

보험료 유예, 대출금리 감면 등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p)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손해보험은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우리금융, 구호키트·급식차량·금융 지원

2000억 규모 특별금융 지원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금융지원 및 긴급구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발생 직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 제작한 긴급구호세트를 지원 중이며 피해가 큰 경북 포항에 ‘우리금융 구호급식차량’을 급파해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해 복구 특별금융 지원안’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에게는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



우리금융그룹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소재 복지회관에 긴급구호세트와 구호급식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

금 대출을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모든 그룹사가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서 수재민들의 빠른 재기와 일상회복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우리은행

완전 비대면 안심전환대출

우리은행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대출 중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출이다. 주택가격, 소득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진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원더랜드’ 앱에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 및 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